

“사회참여 확대가 유지 만드는 길”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학술 세미나

‘조계종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위원회’는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수 스님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의미’를,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4대강 사업의 본질, 무엇이 문제인가’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회불평등의 정책적 요인’을,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부정부패와 시민의 자율적 개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수 스님의 죽음은 대자비행

박경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소신공양의 전거를 통해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한 의미를 밝혔다. 박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개인적·종교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 스님의 분신 또는 자살을 미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박경준 교수는 “《사분술》 등에서 ‘스스로 남을 죽여도 안 되고, 제3자를 시켜서 남을 죽여도 안 되고, 자살해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시켜서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불교 계율에는 금계(禁戒)의 문을 열어도 되는 특별한 예외조항인 개차법이 있다. 문수 스님의 죽음은 결코 이기적인 자살이 아니라 법공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문수 스님의 죽음을 소신공양 또는 대자비행의 보살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붓살명을 위해 대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롭고 효과적이며 최선의 선택으로 도피적 자기 파괴가 아닌 적극적 자기실현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정길 예교로부터 공동대표는 논평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오늘날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파괴와 생명 살상을 대신 속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거버넌스-시범 사업 제안

이도흠 교수는 “4대강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공사”라며 “토건카르텔의 장기집권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체는 연간 발주액이 200조원에 이르는 토건업이다. 중앙·지방의 건설사, 투기자본, 토호 및 정치인 등 토건세력의 지배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이루자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4대강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이도흠 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과 바다가 오염돼 뚝 생명기 죽고 국민 건강이 해쳐지며 △경제위기를 야기하며 △홍수나 침수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243점의 문화재와 1400



6월 4일 군위 지보사에서 문수 스님의 대머석이 봉헌됐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여 문화재보존지역이 침수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개발지향형 인간을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흠 교수는 MB정부에 4대강 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하천 거버넌스를 구축한 후 국민적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불교적 마인드로 사회불균형 해소

유승무 교수는 “한국사회에 만연된 불평등은 자율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위해 한국불교는 그것을 추동하고 견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문수 스님이 남긴 유산을 제대로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승무 교수는 불교적 관점을 통한 경제활동의 재해석을 촉구했다. 유 교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등장한 MB정부에 신자유정책에서 비롯된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부정부패 연천가는 드러나”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직부패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요소 중 하나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반부패 의지”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커녕 반부패전문기관을 통폐합하고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반

부패정책을 대부분 폐기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정세력의 국정농단과 인사농단은 반드시 부패로 귀결된다”면서 “국가재정을 탕진하는 4대강 토목 사업의 뒷이야기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권력 탈피해 자녀행 실천해야

참가자들은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계기로 불교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도흠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조계종단장이나 환경위원장으로 하지는 수경 스님과의 약속을 반복하고 은해사 교구장으로 치른 종단은 정법의 철뿔을 맞아야 한다”면서 “조계종단은 권력은 무섭고 부처님과 사부대중은 두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자비행과 멀어지고 권력에 종속돼 파행을 일삼기 때문이다. 자비행과 보살행의 실천, 철저한 참회와 책임 있는 당사자의 퇴출과 시스템 혁신을 통한 종단 개혁,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불교는 머지않아 소수종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준 교수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계기로 불교는 ‘신대승’의 정신을 선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와 죽어가는 뭇 생명을 살리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절망과 고통에 내몰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정치·사회·경제의 여러 구조적 모순과 병폐를 혁파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탐색하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제안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게 하는 길은 국민이 거대한 힘을 결집해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수 밖에 없다”며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부패와 반칙, 특혜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의 실천에 나서자”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공동체 위한 구도가 더욱 중요

1963년 베트남 전쟁에서 반정부적이라 하여 사찰이 강제 폐쇄되자 이에 격분한 베트남 스님들 36명이 소신공양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 일로 소신공양이라는, 분신자살이 일견 사회적 의미부여가 된 바 있었던 기억이 난다. 알다시피 소신공양이란 말엔 분명 회생의 정신이 담겨 있다. 자신의 ‘회생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속죄를 구하려는 의미도 얼마간 있겠고, 집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현실의 부당함, 불공평에 대한 항의나 호소를 하려는 간절한 소망도 있다. 해서 이타적 자살이란 성격을 띄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소신공양이 과연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화경〉에 소신공양은 몸을 태워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이다. 무자정 소신공양을 찬양하는 뜻은 결코 없다. 여래에게 법으로 공양하는 게 으뜸이란 의미를 전한다. 그러나 몸과 목숨을 다하는 구도자의 자제, 그 마음의 자제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다. 때문에 소신공양 역시 한 방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리라.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요즘 우리의 노인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70여명 수준. 청년층에선 주요 사망의 3대 원인이 자살이다. 오로지 사회가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고, 권력이나 명예 차이에 열안이 된 그 배경의 원인도 있다. 여기에 뒤쳐진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자살의 고위험군이다. 더해서 사회는 이들에게 냉대하는 분위기다. 끼여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회에 절망감이나 반항심이 생길 법하다. 어떤 이는 특정 사회적 스트레스에 더 큰 타격을 받기도 한다. 상처받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 자살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원인(緣因) 역시 사회의 공격성이나 폭력성도 문제다. 해서 자살은 부분적으로 사회에 대한 외침이며, 항변이며, 호소이고, 호소에 대한 포기 의미도 있다.

그러나 어느 자살이든 죽음으로의 도피란 성격을 지을 수 없다. 유명 인사의 자살로 사회 일반에선 자살의 합리화나 그 전염성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비록 자살의 동기가 뚜렷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의 합리화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가 있다면 어디까지나 집단 공동체의 삶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부당성이나 비참의 희생자로 자처하기 전에, 공동체의 의지를 함께 다지며 투쟁을 해야지,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타자의 의견도 끝까지 경청하고, 인내하며 심지어는 적대자에게 존경하는 마음까지 담고 그 해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전투적 비폭력이 그 모범적 예일 것이다.

분신자살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분신자살을 미화시키거나 신비화 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일반에서 자살의 가능성을 촉발시키는 잠재적 촉매 역할이 우려 돼서다. 불교의 근본정신은 역시 평화, 자비, 생명 아닌가. 불의(不義)를 보고 양심이 격앙되는 일, 무관심한 사회를 단죄하려는 정신, 그리고 공공의 선이나 목표를 향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키려는 행위 등은 그 자체에 분명 잘못된 뜻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사의 그 모든 게 상대성 아닌가.

번뇌도 불보살의 화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종교계 지도층 인사의 극단적 행동은 그 사회적, 정신적 여파가 크다. 수행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와 영향을 준다. 소신공양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수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신승철

시인·정신과전문가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량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le.or.kr

접수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호 남 교 육 원 063-254-5529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충 청 북 부 교 육 원 043-263-9966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경 남 서 부 교 육 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꿈을 이루려면 ★행동★ 말 ★생각이 변해야 한다!

“자비명상 지도자” 모집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스님과정: 1) 9월 매주 수요일 오후 2 ~ 5시. 20명 / 12주와 2박 3일 / 장 소 : 동국대 정각원
2) 매달 1박2일 집중과정. 20명. 6회 / 장 소 : 수련원
3) 2박 3일 단기코스. 20명 / 미타정사, 지방순회
문의 : 070)4159-2469 자비명상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교육 프로그램으로 종단의 연수교육 이수료 인정받습니다.

제가과정: 9월 매주 화요일 주간반 14:00 ~ 16:30 / 야간반 19:00 ~ 21:30
15주와 1박 2일 / 정원 - 30명 선착순

문 의 : 동국대 사회교육원 02)2260-3730

교 재 : 고마워요 자비명상 (불광출판사), 내마음 바로보기 (흥익출판사)

(사)자비명상 (따가 두손 모음)

입금계좌 : 농협 095-02-371251 (신화식)

문 의 : cafe.daum.net/jurira 070)4159-2456



내가 웃으니 꽃이 피네요.